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따른 생산자의식 변화와 향후 추진방향

◆... 본고는 지난 10월 13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위기를 기회로! 돈육산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예 재 길

한국엘랑코동물약품(주) 이사

1. 서론

가. 설문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상황과 사육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돼지콜레라 박멸계획과 일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촉박하고, 긴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 일본 돈육수출의 지속과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역정책이 발표되고 실행되면서 돼지

콜레라 박멸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양돈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1999년 4월 15일 출범한 사단법인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확고한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힘입어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96%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 실시요령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및 행동요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1년 동안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으면 해당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후에 6개월 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 사실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정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콜레라의 박멸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양돈인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기에 (사)한국양돈연구회에서는 돼

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에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대한 양돈농가의 의견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선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909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국적인 분포는 경기 지역 94개(10.3%), 강원지역 101개(11.1%), 충청지역 465개(51.5%), 전라지역 127개(14%), 경상지역 108개(11.9%), 지역 미기재 14개 양돈농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5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 항목 뒤에 표시한 숫자 : (응답 양돈장수 / %)

1) 귀 양돈장에서 실시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자돈

(1) 40일령 1차, 60일령 2차	(873/96.0)
(2) 40~50일령 1회 접종	(21/2.3)
(3) 초유급여전 접종법 실시 후 50~70일령에 추가 접종	(5/0.6)
(4) 무응답	(6/0.7)
(5) 기타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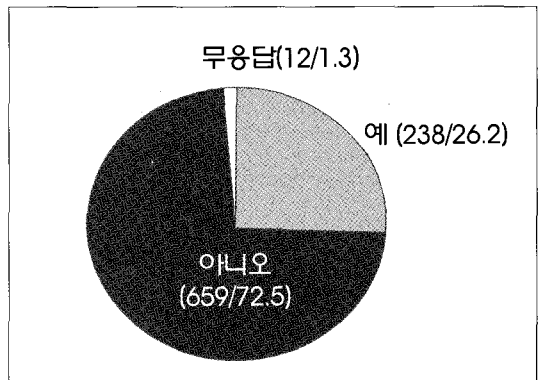
(2) 모돈

(1) 매 분만시 마다	(726/79.9)
(2) 1년에 1회(일시에 접종)	(161/17.7)
(3) 예방접종 미 실시	(2/0.2)
(4) 무응답	(19/2.1)
(5) 기타	(1/0.1)

(3) 후보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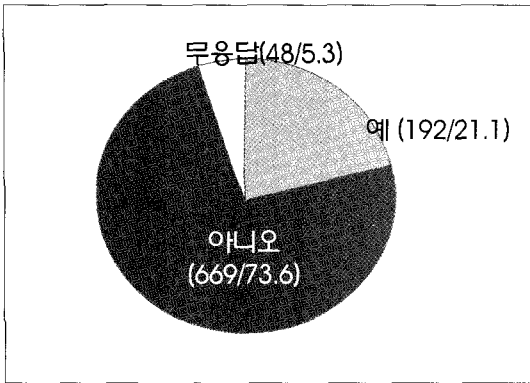
(1) 선발 후 1회	(577/63.5)
(2) 교배전 15일에 실시	(277/30.4)
(3) 예방접종 미 실시	(16/1.8)
(4) 무응답	(33/3.6)
(5) 기타	(6/0.7)

2) 귀하의 양돈장에서는 초유급여전 예방접종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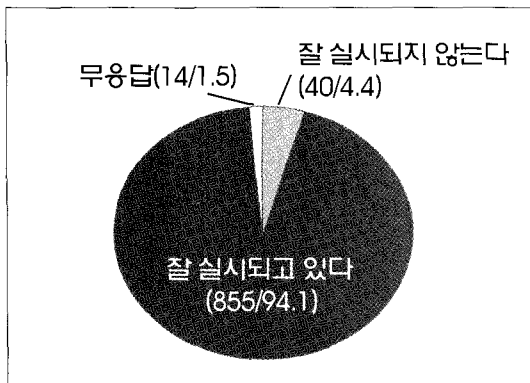


지금까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박멸정책 수립 및 추진과 양돈농가의 적극적 호응으로 박멸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추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역도 반드시 박멸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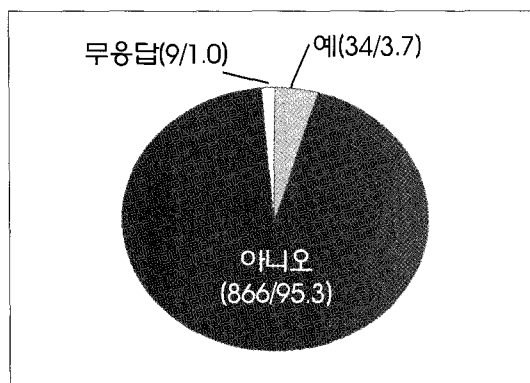
3) 귀하의 양돈장 주위에 초유급여전 예방 접종법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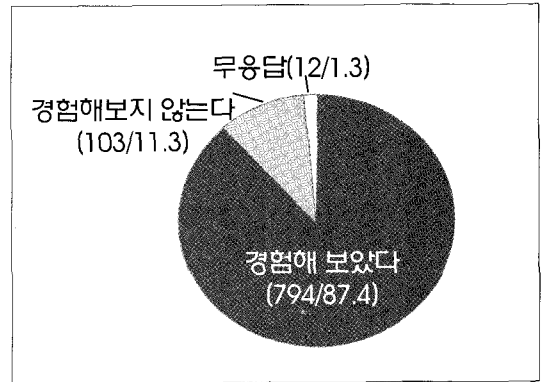
4) 귀하의 양돈장과 인근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법이 잘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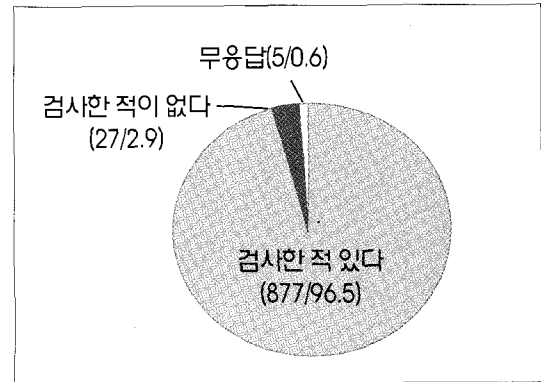
5) 최근(6개월 이내)에 주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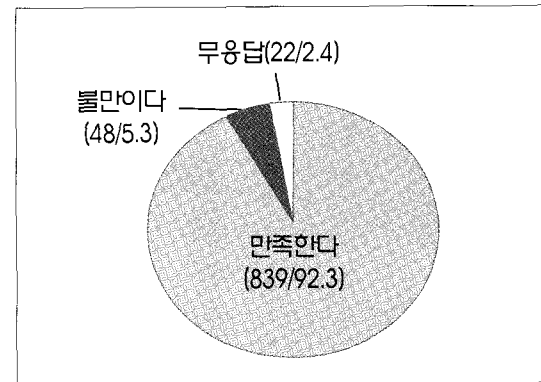
6) 최근 행정당국이나 돼지콜레라박멸비상 대책본부에서의 방역활동을 경험해본 일이 있습니까?



7) 귀하의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채혈하여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를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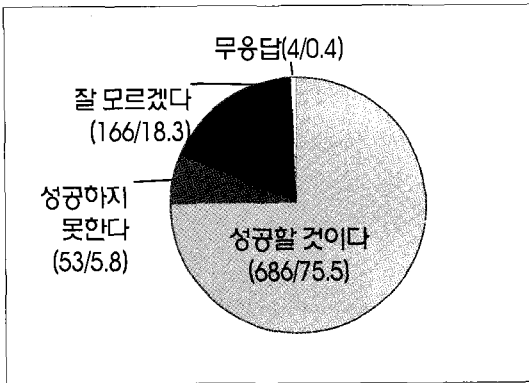


8) 항체가 검사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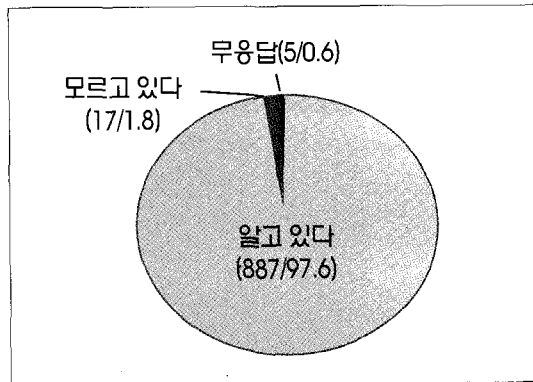


9)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이 계획대로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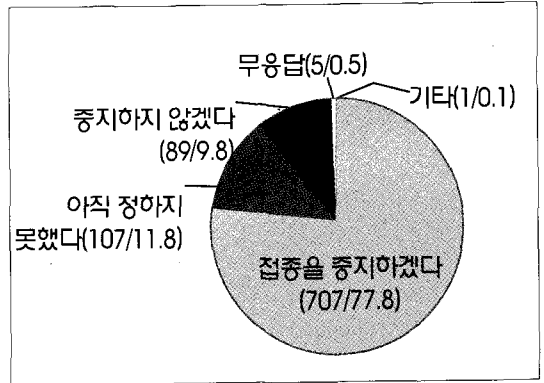
10) 일본이 금년 10월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를 선언하고 돼지콜레라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지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1)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의 중지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이 중단하는 2000년 9월 30일	
(2)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청정화를 국제적으로 선언이 가능한 시점	(547/60.2)
(3) 무응답	(8/0.9)

12) 우리나라도 계획대로 청정화가 이루어져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지한다면 귀하의 농장은 백신을 중지하시겠습니까?



13) 박멸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계획을 재 수정해서라도 계속 박멸	(813/89.4)
(2) 수출을 못하더라도 박멸대책 연기하고 예방접종을 계속하면서 국내소비용 돼지만 생산	(87/9.6)
(3) 무응답	(8/0.9)
(4) 기타	(1/0.1)

14)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될 경우에 귀하의 양돈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심각할 것이다	(819/90.1)
(2) 별로 영향이 없다	(37/4.1)
(3) 잘 모르겠다	(47/5.1)
(4) 무응답	(5/0.6)
(5) 기타	(1/0.1)

15)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 중단에 따른 영향으로 돈가가 하락하고 불황이 장기화 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양돈업을 포기한다	(256/28.2)
(2) 사육규모를 줄인다	(345/38.0)
(3) 현 사육규모 유지	(284/31.2)
(4) 사육규모 확대	(17/1.9)
(5) 무응답	(6/0.6)
(6) 기타	(1/0.1)

16) 만일 돼지콜레라 보상비 조성이 확정된다면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한양돈협회	(514/56.5)
(2) 축협	(199/21.9)
(3) 이 목적을 위한 별도 단체조직	(184/20.3)
(4) 무응답	(9/1.0)
(5) 기타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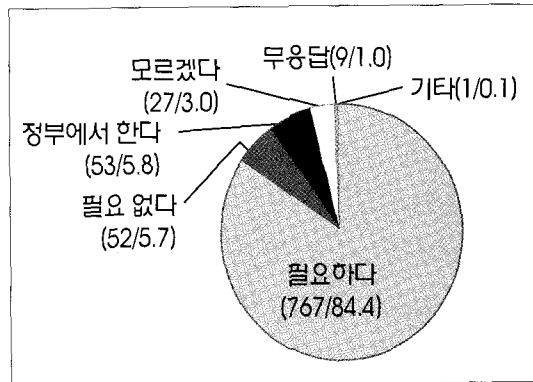
17)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 대책은?

(1) 100% 정부 예산으로 보상	(685/75.4)
(2) 주변 농가가 일부 부담하여 보상에 참여	(75/8.2)
(3) 자조금을 법제화해서 보상	(133/14.6)
(4) 무응답	(9/1.0)
(5) 기타	(7/0.8)

18)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후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정화 선포까지 지속해야 한다	(446/49.1)
(2) 주요 질병대책본부로 존속해야 한다	(429/47.2)
(3) 해체한다	(17/1.8)
(4) 무응답	(8/0.9)
(5) 기타	(9/1.0)

19) 오제스키병,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와 같은 민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향후 다른 질병에 대해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와 같은 민간조직을 운영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참여하고 기금도 내겠다	(589/64.8)
(2) 참여는 하지만 기금은 내지 않겠다	(223/24.5)
(3) 참여하지 않겠다	(81/8.9)
(4) 무응답	(15/1.7)
(5) 기타	(1/0.1)

21) 돼지질병위생대책을 운영할 중심은 어떤 조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축협중앙회	(146/16.0)
(2) 대한양돈협회	(469/51.6)
(3) 대한수의사회	(69/7.6)
(4) 각 지역 양돈조합	(85/9.4)
(5) 새로운 연합회 조직	(117/12.9)
(6) 무응답	(11/1.2)
(7) 기타	(12/1.3)

4. 설문조사 결과로 본 대책

1)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2) 아직까지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과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던 양돈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돼지 콜레라 강독 바이러스의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결과의 홍보도 필요하다.

3)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의 활동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대본에 대한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의 항체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에서 만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요망된다.

5)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시점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성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색되지 않고 발생 위험이 없어진 시기에 중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일본의 청정화 및

수출에만 중지 시기를 맞춘 계획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다.

7) 정부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선언에 동의하여 예방접종을 중지하겠다는 농가가 많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예방접종 중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들 농가에 대한 접종중지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될 경우 우리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9)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후 만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백신접종 중지 선언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존속하거나 오제스키병 등 주요 질병대책본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 앞으로의 양돈산업에 대한 위생정책 및 발전 방향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돈육의 지속적 수출이야말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 방향이요 정책의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2000년 3월 말과 4월 초에 경기도 파주 및 충남 홍성지역 등 15개 한우 및 젓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돈육의 지속적 수출이야말로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발전 방향이요 정책의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생국가로 인정되었으며 대 일본 돈육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박멸정책 수립 및 추진과 양돈농가의 적극적 호응으로 박멸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추진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구제역도 반드시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 500만두 분(구제역 백신 200만두, 추가 주문 300만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파주시

역과 홍성지역 등 구제역 양성지역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가축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양돈농가에서는 돈육의 수출만이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방향이므로 일부 지역에서 발병한 구제역도 반드시 박멸하여 돈육 수출국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우리 (사)한국양돈연구회에서는 돼지콜레라의 박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 발병한 구제역도 반드시 박멸하여 축산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위생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며 우리 연구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성원할 예정이다. **양돈**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 (pH안정)

영월 석회 공업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
 전화: (033)372-5837, 5618 / (033)372-5296, 6878
 FAX: (033)372-5889 야간: (033)372-5293